

나의 대전생활

슈흐라트 /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 국비유학생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2,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위대한 호레즘 왕국의 수도, 우르겐츠시에서 1987년 9월에 태워났습니다. 제 이름은 슈흐라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슬하에서 시간을 잘 지키고 시간 관리를 잘 하도록 엄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한국 이름은 양수호입니다. 이 이름은 제가 현재 대전에서 다니고 있는 충남기계공업고 국어 선생님이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이름도 있어야 된다고 만들어 주셨는데 한자로 다리 양, 빼어날 수, 클 호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잘 안 써서 아는 사람 몇 명밖에 없고 이름을 들 어본 사람들도 이름이 이상하다고 해서 잘 안 쓰고 나의 본국 이름을 알려줍니다.

저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하고 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소아과 의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남동생도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 의학대학교의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충남기계공

업고등학교의 3학년을 다니고 있고 전액 국비 장학생으로 대전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최고의 대학인 세계경제외교대학교(University of world economy and diplomacy)의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시험을 보고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정치외교와 관련이 없는 공업고등학교라서 결정하기가 조금 어려웠지만 한국에 가서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주의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능하면 한국에서 다시 정치외교학과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간단한 인사말 밖에 못했지만 지금은 말 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한마디씩 시작하여 이제는 한국 말을 거의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한국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황정민 송지현 선생님들과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도와 주신 한국 엄마와 지영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한국어 교육을 조금 더 깊게 받은 후 2005년 3월부터 국비장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 학교생활은 너무 힘들었고 우즈베크 학교에 있었을 때처럼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잘 이해가 안됐습니다. 교실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 친구들은 우리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잘 모르겠다고 해서 많이 힘들었고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봤을 땐 어쩔 수 없이 그냥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겨서 선생님들과 한국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고 열심히 하여 지금은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다녔던 학교는 8시 30분에 시작하고 2시쯤 끝났는데 한국은 조금 늦게 시작하고 5시쯤 끝나서 처음엔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고등학교에 다시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저보다 두 살 어린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고등학

교를 다니면서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착하고 재미있는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한국의 사회, 문화, 전통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4년 11월 19일, 인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으로 우리를 만나러 나오셨던 대전시 교육감님과 우리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과 단체로 사진 찍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공항에서 대전으로 오는 길에서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같이 왔던 친구들 모두 한국 음식이 맵고 입맛에 맞지 않아서 못 먹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셔서 과자를 많이 사주셨습니다. 대전에 오고 나서 신기했던 것도 있었고 놀랐던 것도 많았고 물론 힘들었던 것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충남기계공업 고등학교에 6시쯤 도착했는데 학교 건물 앞에 있는 꽃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교장실 가서 교장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기숙사로 갔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카자흐스탄과 몽골 학생들을 만나서 반가웠고 한참 수다를 떨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와서 방을 한국 학생들과 같이 쓰게 하시고 자기나라 친구들과끼리 모국어를 못하게 하신 선생님들을 그때 조금 싫어했지만 지금 와서 그것은 우리가 한국말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 선생님들한테 항상 고마

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여자들과 남자들이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을 보고 조금 신기했습니다. 저는 한국도 우리나라처럼 여자들과 남자들 같이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좀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남자들만 있으니 심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학년 때는 남자들만 있는 것을 믿기 싫었지만 2학년에 올라가서는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한테 가장 힘든 것은 물론 말이 통하지 않고 언어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저는 음식 때문에 힘든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우즈베키스탄의 음식보다 매워 처음에는 못 먹어서 몇 주 동안 빵만 먹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젓가락을 한국에서 처음 사용해봐서 음식 먹을 때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음식물이 자꾸 떨어지고 입까지 안 들어와서 짜증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한국에 적응이 잘 돼서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고 젓가락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음식들 중에서 특히 고기로 만든 삼겹살, 불고기하고 잔치국수를 너무 좋아합니다. 한국 음식이 아니지만 한국에서 많이 팔리는 프랑스의 스파게티 하고 일본의 돈가스를 너무 좋아하며 자주 먹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랐던 이유는 한국이 일

본의 식민지와 6.25 전쟁에서 많이 황폐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세계가 놀랄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발전하게 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이라는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새마을”이라는 것은 빠른 기차 이름으로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웃으며 저한테 올바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이 정치 외교적으로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성공 요소들을 더 잘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외교를 발전시켜 나가 반기문 UN 사무총장님처럼 모국을 세계에 알리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님에 대한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라는 책을 읽으면서 50년 전에 한 시골학교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별도로 열심히 노력을 하여 훌륭한 외교관이 되어 지금 세계 “정부의 대통령”까지 된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으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을 때도 여러 대회에 많이 참석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역사 대회, 영어대회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많이 얻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도

사에서 유명한 “8-Musaev lisuem”이라는 고등학교로 국어, 국사, 영어 시험을 보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영어를?특히 집중하게 가르치는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미국에서 오신 선생님들과 우즈벡 선생님들이 같이 수업하는 교육과정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무렵 4단계로 이루어지는 미국의 "Accels"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미국에서 1년 동안 장학생으로 유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영어대회에 참석하여 3단계까지 합격했었지만 아쉽게도 4단계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선 텔레비전에 출연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았고 처음 해보는 것도 많았습니다. 2006년 6월 13일 KBS “도전(발명) 골든벨”에 100명의 학생중 한명으로 출연하였습니다. 그 대회에 나가서 한국 학생들이 도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또한 그 열정이 몸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골든벨” 인터뷰도 저에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을 때는 한국에서 그런 대회에 참석해서 인터뷰까지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여행도 많이 가봤지만 그 중에서 천년의 얼이 숨 쉬는 경주를 여행 하면서 한국의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여행 하면서 한국

의 전통이랑 경주의 재미있는 사투리를 듣고 몇 개 사투리도 배웠습니다. 갈 때는 계속 비가 와서 구경하기가 힘들었지만 첨성대 자체가 매우 과학적인 건축물, 신라의 시조왕릉으로 전하는 오릉처럼 역사적이고 값진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한국어교육을 마치고 서울에 있는 한국에서 제일 높은 63빌딩에 가서 5년 만(1980-1985)에 건축한 한국에서 제일로 높고 시설이 대단한 건물을 있다는 것을 보고 한국건축이 얼마나 발전 하였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샤크 같은 사나운 동물들을 보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주도도 수학여행을 가서 신기했던 것들도 많았고 아름다웠던 것들도 많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원래는 내리막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르막으로 보이는 도깨비 도로입니다. 아름다웠던 것은 제주도에 있는 굴, 많은 굴나무들과 갈대밭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제주도에 여행을 하면서 한국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애들과 학교에서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으로 많은 추억을 남겨서 또 가고 싶어지는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청주에서 내려서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지내는 동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 봤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실하고 정말 착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유지영 선생님의 통해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라는 좋은 봉사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요일마다 대전지역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데,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간호사, 치위생사 등 다양한 의료인들이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놀란것은 이 모든 진료를 모두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매년 이곳 무료진료소에서 20개국 1,000명의 노동자들이 진료를 받는다는 것을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나라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한국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사람들이 매우 친절하고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 무료진료소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남을 위해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서 꼭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중앙아시아, 러시아 쪽 나라들에서 오신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통역을 해주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지 5개월밖에 안됐지만 그 짧은 기간 안에 세계 여러나라의 다양한 외국인들도 많이 만나며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한국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끔 통역을 할 때 의학에 대한 단어들도 많이 나와서 통역하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여 봉사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외국인노동자들에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곳이지만 더불어 한국말을 배우고 싶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각 나라별로 팀을 나눠서 정말로 열심히 한국말을 가르치면서 봉사를 하고 계신 훌륭한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행사도 많이 합니다. 설, 추석에 명절행사, 여름캠프, 문화체험 등인데 지난 7월 21일에도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여름캠프”를 대전에서 했습니다. 한국인 자원봉사자 20명 정도하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네팔, 베트남,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오신 250여명의 외국인노동자들과 함께 대전 바닷가로 놀러 갔습니다. 저는 대전으로 갈 때 몽골 외국인노동자들이 타신 관광버스를 탔는데 완전히 몽골에 와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몽골 외국인노동자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가면서 몽골 전통노래도 단체로 부르고 개그 같은 것도 많이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다 같이 웃을 때 웃고 노래도 따라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대전에 도착해서 저는 세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를 담당했는데

나이도 어리고 이런 큰 행사에 처음 참석 해봤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제가 통솔하고 있는 나라의 형들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잘 따라 하지 않아서 조금 힘들었기도 했지만 이런 큰 행사에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날 밤 11시쯤에 수련장에서 외국인 형들과 자원봉사자들이랑 수다를 떨면서 첫날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은 바닷가에 가서 놀아서 정말로 재미있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분들과 서로 머드에 빠뜨리기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하고 파도도 타고 수영도 하고 공도 차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1시쯤에 바다에서 나가서 씻고 시원한 냉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대전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공주에서 백제문화재인 역사적인 박물관과 왕릉을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을 하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역사적인 유물상품도 많이 샀습니다. 그것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좋은 정보를 갖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닷가 여행과 백제문화 관람은 이렇게 즐겁게 끝났습니다. “외국인노동자센터 자원봉사단”에서 저는 한국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좋은 일을 하고 계신 실무자 분들과 마음속으로부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정말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학교에서도 이런 즐겁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계속 하

고 싶고,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서도 이런 봉사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청주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한국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시고 잘 챙겨주신 엄마도 계시고, 아빠도 계십니다. 고등학생 1학년 동생과 중학생 1학년인 귀엽고 똑똑한 동생이 있습니다. 저와 엄청 친하게 지내는 동생 이름이 이규호 별명이 빌리라는 동생이 이번 여름방학 때 한달 미국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왔는데 저랑 비슷하게 처음에는 말이 잘 통하지가 않아서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디랭귀지”를 쓰면서 잘 놀았다고 합니다. 오늘 4개월 만에 만나게 됐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한국 가족은 저한테 저의 진짜 가족이 그리워하며 외로워 할 때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한국 엄마랑 같이 다니면 엄마는 주위 사람들 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저를 보고 우리 아들이라고 자랑하시고 집에 올 때마다 친 엄마처럼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엄마를 친 엄마처럼 봅니다. 청주에서 저의 한국 가정처럼 홈스테이를 하신 분들이 모이는 “LEX”(The Institute for Language Excursion and Exchange)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그리고 프랑스어 등이 녹음된

CD를 들으면서 아기가 엄마의 말을 따라하며 조금씩, 조금씩 여러나라 말을 자연스럽게 따라 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같이 어울리면서 행사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LEX 가족캠프를 많이 다닙니다. LEX를 통해서 두 번의 여름캠프를 가게 되었는데 가서 여러나라 사람들도 만나고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즈베크 노래도 부르고, LEX 가족들이랑 잘 어울리면서 춤추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마지막 밤에 캠프파이어는 가장 즐거웠습니다. LEX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한국가족에 대해 많은 것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LEX 가족들은 여 나라 말을 재미있게 듣고 따라 하면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아주 좋아하며, 가족처럼 생각하며 활동하는 모임 같았습니다.

대전에 사는 외국인인 12,000명 이라고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유학생, 연구원, 노동자, 이주여성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정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자기나라로 돌아갈 때 대전에 대해 한국에 대해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사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나라에 가서 한국을 좋은 나라로 소개할 것입니다. 한국은 매우 발전한 나라로 아직도 발전하지 못한 많은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칭찬받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발전 모습을 많이 배우고 싶고 우리나라에 돌아가서도 배운 것을 잘 적용할 생각입니다.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대전시에서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진료를 받는 외국인들을 보면 한국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나라로 돌아가서 이곳에서의 고마운 일들을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지내면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시작하게 되는데 벌써 후보도 결정 됐는데 새로 뽑힐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발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여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이 이루어진다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아주 가까운 나라로 만들어 두 나라가 발전 하는데 다리 역할이 되고 싶습니다.